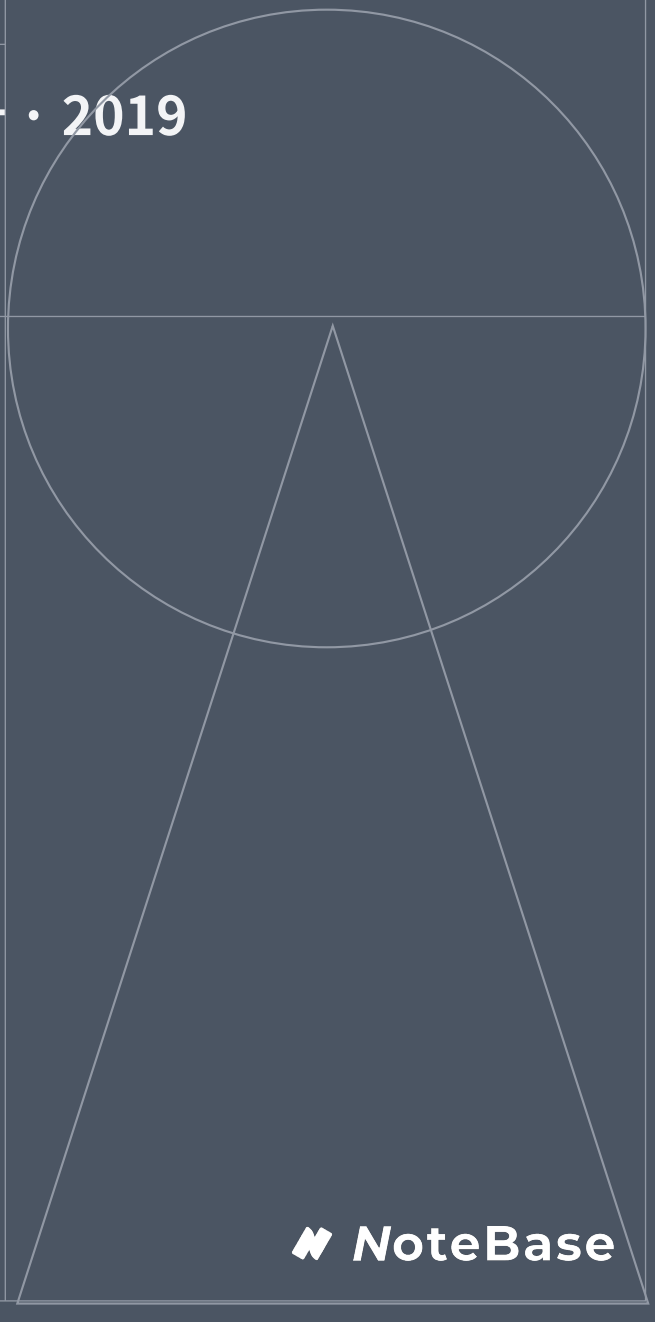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7급 · 한국사 · 2019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7급 · 한국사 · 2019

공무원/지방직/7급 · 한국사 · 2019

문 1. ㉠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주도 고산리 유적은 (㉠) 시대의 연대를 앞당길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여기에서 출토된 삼각형 모양의 돌화살촉과 '이른 민무늬토기'를 분석하여 (㉠) 시대가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출토된 토기는 일명 '고산리식 토기'라고 불린다.

① 고인돌에 간돌검을 부장하였다.

②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옷감을 만들었다.

③ 명도전, 반량전 등의 화폐를 사용하였다.

④ 반달돌칼을 사용하여 이삭을 수확하였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제주 고산리 유적의 고산리식 토기는 기원전 8,000년경부터의 신석기 시대를 보여 준다. 이 문제는 신석기 시대의 생활 도구를 청동기·철기 시대 유물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신석기 시대는 간석기를 사용하고 토기를 만들어 식량을 저장했으며, 가락바퀴와 뼈바늘 등으로 실을 뽑아 옷을 지은 시대이다.
청동기 시대는 벼농사가 발달하고 반달 돌칼로 곡식을 수확한 시대이다.
철기 시대에는 명도전·반량전 같은 중국 화폐가 유입되어 사용되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간돌검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간석기이다. 틀린 표현은 '고인돌에'이며,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의 무덤이다. 올바르게는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고인돌에 간돌검을 부장하였다'이다.
② O. 가락바퀴는 실을 뽑는 도구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실을 만들어 옷감을 짜는 데 이용하였다.
③ X. 명도전과 반량전은 중국에서 들어온 화폐로 철기 시대의 교류 모습을 보여 준다. 틀린 표현은 '신석기 시대'라는 적용이며, 올바르게는 '철기 시대에 명도전·반량전 등을 사용하였다'이다.
④ X. 반달 돌칼은 청동기 시대에 벼·보리 등의 이삭을 수확하는 데 사용한 도구이다. 틀린 표현은 '신석기 시대'라는 적용이며, 올바르게는 '청동기 시대에 반달 돌칼로 이삭을 수확하였다'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간돌검은 간석기라는 말 때문에 신석기 유물로 혼동하기 쉽지만, 고인돌과 함께 청동기 시대를 가리킨다.
④의 반달 돌칼도 돌로 만들었으나 농경 수확 도구이므로 청동기 시대 유물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토기·가락바퀴·뼈바늘은 신석기 시대, 고인돌·간돌검·반달 돌칼은 청동기 시대, 명도전·반량전은 철기 시대로 연결하여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신석기 가락바퀴, 청동기 반달 돌칼·고인돌, 철기 명도전·반량전이다.

NoteBase

문 2. 다음의 사건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이종무가 대마도를 토벌하였다.
(나) 김윤후가 용인에서 살리타를 사살하였다.
(다) 김헌창이 공주를 근거로 반란을 일으켰다.
(라) 이시애가 길주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① (나) → (가) → (다) → (라)
② (나) → (다) → (라) → (가)
③ (다) → (나) → (가) → (라)
④ (다) → (나) → (라) → (가)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통일 신라 말기부터 고려, 조선 전기까지의 주요 반란·대외 정벌 사건을 연대순으로 배열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다) 김헌창의 난(822) — 통일 신라 헌덕왕 때 김헌창이 웅천주, 즉 공주를 근거로 일으킨 반란이다.
2. (나) 김윤후가 살리타를 사살한 사건(1232) — 고려 고종 때 몽골 장수 살리타가 용인 처인성 전투에서 전사한 사건이다.
3. (가)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1419) — 조선 세종 때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를 정벌한 사건이다.
4. (라) 이시애의 난(1467) — 조선 세조 때 이시애가 길주를 근거로 일으킨 반란이다.

왜 이 순서: 김헌창의 난은 통일 신라 말기, 김윤후의 활약은 고려,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과 이시애의 난은 조선 전기의 사건이므로 시대 구분이 먼저 이루어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다) 김헌창의 난(822)이 (나)의 살리타 사살 사건(1232)보다 앞서는데, ①은 (나)를 먼저 배치하였다. 틀린 배열: '(나) → (가) → (다) → (라)' → 올바르게는 '(다) → (나) → (가) → (라)'이다.
② X — (다) 김헌창의 난은 통일 신라 시기의 사건으로 고려의 (나)보다 먼저이다. 틀린 배열: '(나) → (다) → (라) → (가)' → 올바르게는 '(다) → (나) → (가) → (라)'이다.
③ O — (다) 822년, (나) 1232년, (가) 1419년, (라) 1467년의 순서이므로 시대순 배열이 맞다.
④ X — 조선 전기 사건 중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1419)이 이시애의 난(1467)보다 먼저이다. 틀린 배열: '(다) → (나) → (라) → (가)' → 올바르게는 '(다) → (나) → (가) → (라)'이다.

오답 포인트

(가)와 (라)는 모두 조선 전기의 사건이어서 순서를 바꾸기 쉽다. 세종 때의 대마도 정벌이 세조 때의 이시애의 난보다 앞선다는 점이 ④를 가르는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표 배열은 먼저 통일 신라·고려·조선으로 시대를 나눈 뒤, 같은 시대 안에서는 왕대와 연도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이 문항에서는 신라의 김헌창, 고려의 김윤후, 조선 세종의 이종무, 조선 세조의 이시애 순으로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김헌창 822 → 김윤후·살리타 1232 → 이종무 1419 → 이시애 1467이다.

NoteBase

문 3. 조선 후기 사회경제적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박지원의 『과농소초』와 서호수의 『해동농서』 등을 비롯한 여러 농서가 편찬되었다.
ㄴ. 담배·채소·약재 등을 상품작물로 재배하여 수익을 올리는 부농이 나타났다.
ㄷ. 청으로부터 유황·구리 등을 수입하여 일본에 수출하였다.
ㄹ. 지대납부 방식이 도조법에서 타조법으로 전환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조선 후기 농업서의 편찬, 상품 작물 재배, 청·일 간 중계무역, 지대 납부 방식의 변화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과농소초와 해동농서는 조선 후기의 농업 기술과 경험을 정리한 농서이다. 상품 작물 재배의 확대는 농민층의 분화를 낳았다. 중계무역에서는 일본의 구리·유황을 청에 내보내고, 청의 비단·약재 등을 일본에 내보냈다. 타조법은 수확량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내는 방식이고, 도조법은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정한 액수의 지대를 내는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ㄱ·ㄴ은 모두 옳다. 박지원의 『과농소초』와 서호수의 『해동농서』를 비롯한 농서가 편찬되었고, 담배·채소·약재 같은 상품 작물 재배는 수익을 올린 농민과 그렇지 못한 농민의 분화를 낳았다.
② X: ㄱ은 옳지만 ㄷ이 틀리다. 틀린 표현은 '청으로부터 유황·구리 등을 수입하여 일본에 수출'이다. 실제로는 일본에서 구리·유황 등을 들여와 청에 수출하였다.
③ X: ㄴ은 옳지만 ㄹ이 틀리다. 틀린 표현은 '도조법에서 타조법으로'이다. 실제로는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④ X: ㄷ·ㄹ이 모두 틀리다. 중계무역에서 유황·구리의 이동 방향은 일본에서 청으로이며, 지대 납부 방식의 전환 방향도 타조법에서 도조법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ㄷ은 중계무역의 출발지와 도착지를 뒤바꾸어 놓았고, ㄹ은 타조법과 도조법의 전환 방향을 거꾸로 제시하였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농서 편찬과 상품 작물 재배는 조선 후기 농업의 발달로 묶어 판단한다. 무역 선지는 물품별 이동 방향을, 지대 선지는 '수확 비율'의 타조법과 '정액 지대'의 도조법을 먼저 대조하여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일본 구리·유황 → 청, 청 비단·약재 → 일본 / 타조법은 비율, 도조법은 정액이다.

NoteBase

문 4. 대한제국 정부가 시행한 정책은?

① 일본에 상품 관세를 부과하고자 조·일통상장정을 체결하였다.

② 삼정문란을 바로잡기 위하여 삼정이정청을 창설하였다.

③ 지계아문을 두고 일부 지주에게 지계를 발급하였다.

④ 군국기무처가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대한제국이 광무개혁 과정에서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과, 조선 후기·개항기·갑오개혁기의 정책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은 황제권을 강화하고 근대적 토지 소유를 정비하려 한 개혁이다. 지계아문은 토지조사를 담당한 기구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계를 발급하였다.
삼정이정청은 1862년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다.
군국기무처는 1894년 갑오개혁을 추진한 기구로, 과거제 폐지를 포함한 개혁을 실시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X. 일본에 상품 관세를 부과하려고 조·일통상장정을 체결한 것은 조선 정부의 정책이다. 틀린 표현은 '대한제국 정부'이며, 올바르게는 '조선 정부'이다.
② X. 삼정문란을 바로잡기 위한 삼정이정청 설치는 1862년 조선 철종 때의 조치이다. 틀린 표현은 '대한제국 정부'이며, 올바르게는 '철종 때 조선 정부'이다.
③ O. 대한제국은 토지조사를 위해 지계아문을 두고, 토지 소유자에게 지계를 발급하여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정리하려 하였다.
④ X. 군국기무처가 과거제를 폐지한 것은 1894년 갑오개혁기의 일이다. 틀린 표현은 '대한제국 정부'이며, 올바르게는 '갑오개혁을 추진한 군국기무처'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조·일통상장정, ②의 삼정이정청, ④의 군국기무처는 모두 대한제국 이전의 정책이다. 정책 내용만 맞는지 보지 않고, 해당 기구와 정책이 실시된 시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대한제국 정책은 광무개혁과 연결해 판단한다. 토지조사·지계아문·지계 발급이 보이면 대한제국을, 삼정이정청이면 철종 때를, 군국기무처·과거제 폐지이면 갑오개혁기를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대한제국 광무개혁: 지계아문 설치 → 토지조사 → 지계 발급이다.

NoteBase

문 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기는?

왕 41년 겨울 10월에 백제 근초고왕이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평양성을 공격해 왔다. 왕이 군대를 내어 막다가 화살에 맞아 돌아가셨다.
— 『삼국사기』 —

① (가): 낙랑·대방군 축출
② (나): 모용황에 의해 환도성 함락
③ (다): 전진의 순도 불교 전래
④ (라): 평양 천도, 백제 한성 함락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고구려·백제의 대외 관계 사건을 연대순으로 배열하여, 고국원왕의 전사 시기를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료의 '왕 41년'은 고구려 고국원왕 41년(371)이다. 이때 백제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공격하였고, 고국원왕은 화살을 맞아 전사하였다. 371년은 342년 모용황의 환도성 함락 뒤, 372년 전진의 순도에 의한 불교 전래 전이므로 (나)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가) X: (가)의 낙랑·대방군 축출은 미천왕 때인 4세기 초의 사건이다. 자료의 371년보다 이르다. 틀린 위치는 '(가)'이며, 올바르게는 '(나)'이다.
② (나) O: 371년 백제 근초고왕의 평양성 공격과 고국원왕 전사는 모용황의 환도성 함락(342) 뒤, 불교 전래(372) 전의 시기이다.
③ (다) X: (다)의 기준 사건은 전진의 순도가 불교를 전한 372년이다. 자료의 사건은 그보다 1년 이르다. 틀린 위치는 '(다)'이며, 올바르게는 '(나)'이다.
④ (라) X: (라)의 백제 한성 함락은 475년으로, 자료의 371년보다 훨씬 뒤의 사건이다. 틀린 위치는 '(라)'이며, 올바르게는 '(나)'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의 순도 불교 전래는 372년이고, 고국원왕 전사는 371년이다. 두 사건이 모두 4세기 후반이라도 연도를 한 해 차이까지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삼국 간 전쟁 기사에서는 왕·공격 대상·결과를 먼저 확인한다. '근초고왕의 평양성 공격, 고국원왕 전사'가 나오면 371년으로 잡고, 앞뒤 기준 사건인 342년 환도성 함락과 372년 불교 전래 사이에 배치한다.

암기 포인트

342 환도성 함락 → 371 고국원왕 전사 → 372 순도 불교 전래이다.

NoteBase

문 6. ㉠, ㉡ 승려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 왕이 수(隋)에 군사를 청하는 글을 요청하자, ㉠은 “자기가 살기 위해 남을 멸망시키는 것은 승려가 할 일이 아니니, 제가 대왕의 땅에 살면서 수초(水草)를 먹고 있사오니 명령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 왕이 왕성을 짓고자 하여 ㉡에게 의견을 묻자, “비록 들판의 초가집에 살아도 바른 도를 행하면 복업이 길어질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수고롭게 하여 애써 성(城)을 만들지라도 역시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 『삼국사기』 —

① ㉠ - 왕에게 건의하여 황룡사 9층 탑을 세웠다.

② ㉠ - 화랑이 지켜야 할 세속오계를 만들었다.

③ ㉡ - 저잣거리에서 『무애가』를 부르면서 대중을 교화하였다.

④ ㉡ - 당에 유학하여 유식론을 독자적으로 발전시켰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삼국 시대 승려 원광과 의상의 활동을 파악하고, 다른 승려의 대표 활동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원광: 수에 군사를 청하는 글을 지었고, 화랑의 실천 규범인 세속오계를 제시하였다.
의상: 문무왕에게 왕성 축성을 만류하였으며, 당에서 배운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화엄종을 이끌었다.
자장: 선덕여왕에게 황룡사 9층 목탑 건립을 건의하였다.
원효: 무애가를 부르며 대중에게 불교를 널리 전하였다.
원측: 당에서 유식 사상을 연구하여 독자적으로 발전시켰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황룡사 9층 목탑 건립을 건의한 승려는 원광이 아니라 자장이다. 틀린 표현 'ㄱ' → 올바르게는 '자장'이다.
② O. ㄱ은 원광이며, 원광은 화랑이 지켜야 할 세속오계를 만들었다.
③ X. ㄴ은 의상이다. 저잣거리에서 무애가를 부르며 대중을 교화한 승려는 의상이 아니라 원효이다. 틀린 표현 'ㄴ' → 올바르게는 '원효'이다.
④ X. ㄴ은 의상이다. 당에 유학하여 유식 사상을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승려는 의상이 아니라 원측이다. 틀린 표현 'ㄴ' → 올바르게는 '원측'이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①은 자장의 황룡사 9층 목탑, ③은 원효의 무애가, ④는 원측의 유식 사상을 원광이나 의상에게 섞어 놓은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문 속 수에 군사를 청하는 글과 세속오계가 보이면 원광, 왕성 축성을 만류한 말이 보이면 의상으로 먼저 특정한다. 이후 선지의 황룡사 9층 목탑·무애가·유식 사상을 각각 자장·원효·원측에 연결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원광=세속오계, 의상=화엄, 자장=황룡사 9층 목탑, 원효=무애가, 원측=유식이다.

NoteBase

문 7.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왕은 사벌주를 상주로 바꾸는 등 9주의 명칭을 개정하고, 군현의 이름도 한자식으로 고쳤다. 또한, 중앙 관서의 관직명도 중국의 예에 맞추어 한자식으로 바꾸었다.
— 『삼국사기』 —

① 국학이 설치되었다.

② 녹읍이 부활되었다.

③ 독서삼품과가 시행되었다.

④ 처음으로 정전이 지급되었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제시문에서 사벌주를 상주로 고치는 등 지방 명칭을 한자식으로 바꾼 왕은 신라 경덕왕이다. 경덕왕 때의 녹읍 부활과 신라 중대 왕들의 주요 정책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녹읍은 관리에게 일정 지역을 주어 그곳의 조세와 역을 거둘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신문왕 때에는 녹읍을 없애고 관료전을 지급하였으나, 경덕왕 때 녹읍이 다시 부활하였다. 국학은 신문왕, 정전 지급은 성덕왕, 독서삼품과는 원성왕의 업적으로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 국학은 통일 신라 신문왕 때 설치된 유학 교육 기관이다. 틀린 표현은 '국학이 설치되었다'이며, 올바르게는 '신문왕 때 국학이 설치되었다'이다.
② O - 경덕왕 때에는 관리에게 수조권과 함께 주민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하던 녹읍이 다시 부활하였다.
③ X - 독서삼품과는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려 한 제도로, 원성왕 때 시행되었다. 틀린 표현은 '독서삼품과가 시행되었다'이며, 올바르게는 '원성왕 때 독서삼품과가 시행되었다'이다.
④ X - 정전은 백성에게 지급한 토지로, 성덕왕 때 처음 지급되었다. 틀린 표현은 '처음으로 정전이 지급되었다'의 주체를 경덕왕으로 보는 데 있으며, 올바르게는 '성덕왕 때 처음으로 정전이 지급되었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④는 경덕왕보다 앞선 신문왕·성덕왕의 정책이고, ③은 뒤의 원성왕 업적이다. 지방 명칭 한자식 개정이라는 경덕왕의 단서만 보고 모든 통일 신라 정책을 경덕왕에게 연결하는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통일 신라 왕의 업적은 제시문의 핵심 단서로 먼저 왕을 특정한 뒤, 각 제도가 그 왕의 재위 전·중·후 어느 시기에 시행되었는지 순서로 대조한다. 사벌주를 상주로 고친 지방 명칭 개정은 경덕왕의 표지이다.

암기 포인트

신문왕 국학·관료전, 성덕왕 정전, 경덕왕 녹읍 부활·지명 한화, 원성왕 독서삼품과이다.

NoteBase

문 8. 밑줄 친 '인물상'에 해당하는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개성의 현릉 부근에서 발견된 청동제 인물상은 온화한 얼굴에다가 두 손을 맞잡고 있으며, 자비로운 미소를 띠고 있다. 이 상은 황제가 착용한다는 통천관을 쓰고 있어 고려가 황제 국가로 자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① 유학 교육기관으로 국자감을 설치하였다.
② 거란에 대비하여 30만 광군을 조직하였다.
③ 개경을 황도로, 서경을 서도로 격상하였다.
④ 역분전이라는 토지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현릉의 청동 인물상과 통천관을 단서로 고려 태조를 파악하고, 태조의 업적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태조: 고려를 건국하고 후삼국을 통일한 뒤, 논공행상 성격의 역분전을 처음 시행하였다.
성종: 유교 정치 체제를 정비하면서 국자감을 설치하였다.
정종: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30만 광군을 조직하였다.
광종: 황제국 체제를 지향하여 개경을 황도, 서경을 서도로 격상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X - '국자감을 설치하였다'가 틀린 표현이다. 국자감은 성종이 유학 교육 기관으로 설치하였다.
② X - '30만 광군을 조직하였다'가 틀린 표현이다. 거란에 대비하여 30만 광군을 조직한 왕은 정종이다.
③ X - '개경을 황도, 서경을 서도로 격상하였다'가 틀린 표현이다. 이는 황제국 체제를 지향한 광종의 조치이다.
④ O - 태조는 후삼국 통일 뒤 공신과 관료·군사에게 토지를 분급하는 역분전을 처음 시행하였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통천관과 황제국 의식 때문에 광종을 떠올리기 쉽지만, 지문은 현릉에서 나온 태조의 인물상이다. 황제적 표현이 보인다는 단서와 묘주의 실제 업적을 구분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려 전기 왕의 업적은 인물명과 대표 정책을 묶어 판단한다. 태조는 건국·후삼국 통일·역분전, 성종은 국자감, 정종은 광군, 광종은 황도·서도의 연결로 구분된다.

암기 포인트

태조=고려 건국·역분전, 성종=국자감, 정종=광군, 광종=황도·서도이다.

NoteBase

문 9. 고려시대 음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문종 때 처음 실시되었다.
ㄴ. 음서로 등용된 사람들은 고위 관직에 오르지 못했다.
ㄷ. 사위나 외손자에게도 적용되었다.
ㄹ. 공신의 자손, 조종 묘예, 문무 5품 이상 관인의 자손 등이 대상이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려의 음서가 시행된 시기와 대상, 그리고 음서 출신자의 관직 진출 가능성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음서는 과거 시험이 아니라 가문의 공로와 관직을 바탕으로 그 자손·친족에게 관직 진출의 길을 열어 준 제도이다. 고려의 지배층은 과거와 함께 음서를 통해 관료가 될 수 있었으므로, 음서는 귀족 사회의 신분적 특권을 보여 준다. 대상에는 공신의 자손, 조종 묘예, 문무 5품 이상 관리의 자손 등이 포함되었고 사위나 외손에게도 적용되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ㄱ X: 틀린 표현은 '문종 때 처음 실시'이다. 음서는 고려 초기부터 운영된 제도이므로 문종 때 처음 실시된 것이 아니다.
ㄴ X: 틀린 표현은 '고위 관직에 오르지 못했다'이다. 음서로 관직에 진출한 사람도 고위 관직까지 오를 수 있었으며, 이는 귀족의 관료 진출을 뒷받침하였다.
ㄷ O: 음서는 혈연 범위를 넓게 적용하여 사위와 외손에게도 적용되었다.
ㄹ O: 공신의 자손, 조종 묘예, 문무 5품 이상 관리의 자손 등은 음서의 대상이었다.

① X: ㄱ과 ㄴ이 모두 틀리므로 'ㄱ, ㄴ' 조합은 옳지 않다. 올바른 조합은 ㄷ, ㄹ이다.
② X: ㄱ이 틀리므로 'ㄱ, ㄷ' 조합은 옳지 않다. 올바른 조합은 ㄷ, ㄹ이다.
③ X: ㄴ이 틀리므로 'ㄴ, ㄹ' 조합은 옳지 않다. 올바른 조합은 ㄷ, ㄹ이다.
④ O: ㄷ과 ㄹ만 옳으므로 'ㄷ, ㄹ' 조합이 정답이다.

오답 포인트

ㄱ의 '문종 때 처음'과 ㄴ의 '고위 관직에 오르지 못했다'가 함정이다. 음서를 특정 왕대의 신규 제도로 보거나 단순한 하급 관리 임용 제도로 보면 틀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음서가 나오면 먼저 대상이 고위 관리·공신·왕실 관련자의 자손과 친족인지 확인한다. 이어 과거와 달리 가문을 바탕으로 관직 진출을 허용한 특권 제도라는 점으로 고위 관직 진출을 부정하는 표현을 걸러 낸다.

암기 포인트

음서 = 가문을 통한 관직 진출, 대상은 공신·조종 묘예·5품 이상 관리의 자손과 그 친족이다.

NoteBase

문 10.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왕이 복주에 이르렀다. 정세윤은 성품이 충성스럽고 청렴하였는데, 왕의 파천(播遷) 이래 밤낮으로 근심하고 분하게 여겨서 홍건적을 물리치고 개경을 회복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겼다. … (중략) … 마침내 정세윤을 총병관으로 임명하였다.
— 『고려사절요』 —

① 『향약구급방』이 편찬되었다.
② 정치도감이 설치되었다.
③ 『직지심체요절』이 금속활자로 인쇄되었다.
④ 이제현에 의해 『사략』이 편찬되었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홍건적의 침입으로 복주(안동)까지 피란하였다가 개경을 회복한 공민왕의 재위 시기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민왕은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개혁을 추진한 고려 말의 왕이다. 1361년 홍건적 침입 때 복주로 피란하였고, 뒤에 정세운을 총병관으로 삼아 홍건적을 격퇴하고 개경을 되찾았다.

선지별 해설

① X. 『향약구급방』은 고종 때인 1236년에 편찬된 의서이다. 틀린 표현은 공민왕 시기로 보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고종 때 편찬되었다.
② X. 정치도감은 충목왕 3년인 1347년에 부원 세력을 견제하고 폐정을 개혁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다. 틀린 표현은 공민왕 재위와 연결한 점이며, 올바르게는 충목왕 때 설치되었다.
③ X. 『직지심체요절』은 우왕 때인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인쇄되었다. 틀린 표현은 공민왕 재위에 해당한다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우왕 때 인쇄되었다.
④ O. 이제현은 공민왕 때 『사략』을 편찬하였다.

오답 포인트

③의 금속 활자 인쇄 사실만 기억하면 공민왕과 혼동하기 쉽다. 『직지심체요절』은 공민왕 뒤의 우왕 때 간행되었고, 공민왕 시기의 저술은 이제현의 『사략』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려 말 사료에서 복주 피란, 홍건적 격퇴, 개경 회복, 정세운이 함께 나오면 먼저 공민왕을 떠올린다. 그다음 각 선택지의 왕을 고종·충목왕·우왕·공민왕으로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공민왕-홍건적 격퇴-개경 회복-이제현 『사략』, 우왕-『직지심체요절』이다.

NoteBase

문 11. ㉠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은/는 만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외국 열강의 내정 간섭을 비판하였다. 또 정부 관리들까지 참석한 관민 공동회를 열어 국정 개혁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각부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으로 서명 날인하지 않은 조약을 시행하지 말 것, 전국 재정을 탁지부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고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인민에게 공표할 것 등의 요구가 담긴 헌의 6조를 채택하였다.

① 국정의 기본 강령인 홍범 14조를 발표하였다.

② 러시아가 절영도 조차를 요구하자 이에 반대하였다.

③ 경제적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국채 보상 운동을 일으켰다.

④ 황해도 일대에 방곡령을 내려 외국에 곡물을 유출하지 못하게 하였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자료의 단체는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를 열고 헌의 6조를 채택한 독립협회이다. 이 문제는 독립협회의 자주국권·민권 신장 운동을 다른 시기의 개혁 및 경제 운동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독립협회는 서재필 등이 중심이 되어 자주독립과 민권 신장을 추구한 단체이다.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를 통해 외세의 이권 침탈을 비판하고, 헌의 6조로 국정 개혁을 요구하였다.
홍범 14조는 갑오개혁기에 마련·반포된 개혁 강령이고, 국채 보상 운동은 1907년에 전개된 경제적 자주권 운동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홍범 14조를 발표'한 주체가 독립협회라는 점이 틀렸다. 홍범 14조는 갑오개혁기에 마련·반포된 국가 개혁 강령이다.
② O. 독립협회는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에 반대하여 자주국권을 지키려 하였다. 자료의 외세 간섭 비판 및 자주국권 수호 활동과도 일치한다.
③ X. '국채 보상 운동을 일으켰다'는 부분이 틀렸다. 국채 보상 운동은 1907년에 국채를 국민의 모금으로 갚아 경제적 자주권을 지키려 전개된 운동이다.
④ X. '방곡령을 내렸다'는 부분이 틀렸다. 방곡령은 지방관이 곡물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내린 조치이며, 독립협회의 활동이 아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의 홍범 14조, ③의 국채 보상 운동, ④의 방곡령은 모두 자주국권 또는 근대 개혁과 관련되어 독립협회 활동처럼 보이기 쉽다. 그러나 독립협회를 판별하는 핵심 표지는 만민공동회·관민공동회·헌의 6조·절영도 조차 반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단체를 묻는 자료에서는 먼저 고유한 활동을 찾는다.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 헌의 6조가 보이면 독립협회로 판단한 뒤, 선택지가 그 단체의 활동인지와 다른 시기 사건인지를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독립협회 = 만민공동회·관민공동회·헌의 6조·절영도 조차 반대이다.

NoteBase

문 12. 밑줄 친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29년에 통학 열차를 이용하던 한 일본인 학생이 한국인 여학생을 희롱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분노한 한국인 학생은 일본인 학생에 맞서 싸웠다. 이때 일제 경찰은 일본인 학생만 두둔하고 나섰다. 광주의 학생들은 이에 대응해 시위를 벌였다. 일제의 차별 정책에 맞서 일어난 이 운동은 전국으로 퍼졌고 곳곳에서 동맹 휴학 투쟁이 연이어 벌어졌다.

①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가 창설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② 조선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이 시작되는 배경이 되었다.
③ 신간회가 그 진상을 규명하고자 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하였다.
④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조선 민흥회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다.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1929년 통학 열차 사건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파악하고, 이 운동과 관련된 단체 활동을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1929년 일제의 민족 차별에 항거하여 일어난 학생 중심의 항일 운동이다. 신간회는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형평사 창설과 조선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은 1920년대 초의 일이고, 조선 민흥회 결성은 6·10 만세 운동 뒤인 1926년의 일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가 창설된 것은 1923년 형평 운동의 일로, 1929년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결과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결과로 이어졌다'이며, 올바르게는 '형평 운동의 결과로 조선 형평사가 창설되었다'이다.
② X. 조선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은 1920년대 초 민족 교육 진흥을 위해 전개된 운동이다. 틀린 표현은 '시작되는 배경'이며, 올바르게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보다 앞서 전개되었다'이다.
③ O. 신간회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④ X. 조선 민흥회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보다 앞선 1926년에 결성되었다. 틀린 표현은 '만들게 된 계기'이며, 올바르게는 '6·10 만세 운동을 계기로 결성되었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②·④는 모두 광주 학생 항일 운동과 관련 있어 보이는 민족 운동을 제시하지만, 실제 시기가 1929년보다 앞선다는 점이 함정이다. 특히 ④의 조선 민흥회는 6·10 만세 운동 뒤의 단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료에서 통학 열차 사건, 광주 학생, 1929년을 확인하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으로 판단한다. 이어서 신간회의 조사단 파견은 연결하고, 다른 선지는 해당 운동의 연도를 비교하여 앞선 사건이면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1929 광주 학생 항일 운동 → 신간회 조사단 파견으로 연결한다.

NoteBase

문 13.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제의 침략이 거세지자 그는 국외로 망명했다. 그는 의열단장 김원봉의 요청을 받아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하였다. 이 선언에는 외교 운동에 주력하자는 주장에 반대하고 더욱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추진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① 민족주의 역사학을 지향한 『독사신론』을 저술하였다.

② 철저한 문헌 고증을 지향하며 진단학회를 조직하였다.

③ 동학을 천도교로 개편하고 친일적 인물들을 교단에서 내쫓았다.

④ 보편적 역사 발전 법칙에 따라 역사를 기술한 『조선사회경제사』를 집필하였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의열단장 김원봉의 요청으로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한 신채호와 그의 대표 역사 저술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신채호: 민족주의 사학을 바탕으로 우리 역사의 주체성을 강조하였고, 「독사신론」에서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으로 파악하였다.
이병도 등: 문헌 고증을 중시하는 실증주의 사학의 입장에서 진단학회를 조직하였다.
손병희: 동학을 천도교로 개편하고 교단을 정비하였다.
백남운: 보편적 역사 발전 법칙과 사회경제사적 관점에서 「조선사회경제사」를 집필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O. 신채호는 민족주의 역사학을 지향하였으며, 「독사신론」을 저술하여 민족의 주체적 역사의식을 강조하였다.
② X. '진단학회를 조직하였다'는 신채호의 활동이 아니다. 틀린 표현 → 올바르게는 이병도 등이 문헌 고증을 중시하며 진단학회를 조직하였다.
③ X. '동학을 천도교로 개편하고 친일적 인물들을 교단에서 내쫓았다'는 손병희의 활동이다. 틀린 표현 → 올바르게는 손병희가 동학을 천도교로 개편하고 교단을 정비하였다.
④ X. '보편적 역사 발전 법칙에 따라 역사를 기술한 「조선사회경제사」를 집필하였다'는 백남운의 활동이다. 틀린 표현 → 올바르게는 백남운이 사회경제사적 관점에서 「조선사회경제사」를 집필하였다.

NoteBase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②의 진단학회, ③의 천도교 개편, ④의 「조선사회경제사」는 모두 근대 역사학·민족운동 관련 인물의 활동이어서 신채호의 활동처럼 섞어 제시한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망명 중 김원봉의 요청으로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했다는 단서가 나오면 신채호를 먼저 떠올린다. 이어 신채호는 「독사신론」·민족주의 사학, 이병도 등은 진단학회, 손병희는 천도교, 백남운은 「조선사회경제사」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신채호=「독사신론」·조선혁명선언 / 손병희=천도교 / 백남운=「조선사회경제사」이다.

NoteBase

문 14. ㉠, ㉡의 거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이제 살펴보건대, 신라가 주·군을 설치할 때 그 전정(田丁), 호구(戶口)가 현의 규모가 되지 못하는 곳에는 ㉠, ㉡을/를 두어 소재지의 읍에 속하게 하였다.
- 『신증동국여지승람』 -

◯ 지난 왕조 때 5도와 양계에 있던 역과 진에서 역을 부담한 사람과 ㉡의 사람은 모두 고려 태조 때의 명령을 기억한 사람이므로, 고려는 이들에게 천하고 힘든 일을 맡게 했다.
- 『태조실록』 -

① 향리층의 지배를 받았다.

② 관직의 진출에 제한을 받지 않았다.

③ 백정이라고 불렸으며 조·용·조를 면제받았다.

④ 개인의 소유물로 인정되어 매매나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되었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려의 특수 행정구역인 향과 부곡의 주민이 일반 군현민보다 차별받았다는 점과 그 신분상 제약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향과 부곡은 주현에 예속된 특수 행정구역이다. 이 지역 주민은 법적으로 양인 계열이었지만 일반 군현민보다 낮은 대우를 받았고, 향리층의 지배 아래 놓였으며 과거·관직 진출에도 제약이 있었다.
백정은 고려의 일반 양인 농민을 가리키는 말이며, 조세·공물·역을 부담하였다.
노비는 주인의 소유물로 취급되어 매매·증여·상속의 대상이 되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향·부곡은 주현에 예속된 특수 행정구역이므로, 그 주민은 지방 행정 실무를 맡은 향리층의 지배를 받았다.
② X. '관직의 진출에 제한을 받지 않았다'가 틀린 표현이다. 향·부곡 주민은 일반 군현민보다 차별받아 과거 응시와 관직 진출에 제한을 받았다.
③ X. '백정이라 불렸으며 조·용·조를 면제받았다'가 틀린 표현이다. 백정은 일반 양인 농민을 가리키며, 이들은 조세·공물·역을 부담하였다. 향·부곡 주민은 오히려 일반 군현민보다 불리한 처지에 놓였다.
④ X. '개인의 소유물로 인정되어 매매나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된 것은 노비이다. 향·부곡 주민은 차별받았지만 노비처럼 개인의 소유물로 취급된 것은 아니다.

오답 포인트

③은 백정과 향·부곡 주민을 바꾸어 놓은 선지이고, ④는 특수 행정구역 주민의 신분 제약을 노비의 소유 관계와 혼동하게 하는 선지이다. 향·부곡 주민은 일반 군현민보다 낮은 대우를 받았지만 노비와 동일하지는 않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향·소·부곡이 보이면 먼저 '주현에 예속된 특수 행정구역, 일반 군현민보다 차별, 과거·관직 진출 제약'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이어서 일반 양인 농민인 백정과 사적 소유의 대상인 노비를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향·부곡은 차별받은 특수 행정구역 주민, 백정은 일반 양인 농민, 매매·상속의 대상은 노비이다.

NoteBase

문 15. 조선 전기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구와 교류하여 불경·유교 경전·범종 등을 전해 주었다.

② 대마도주와 계해약조를 맺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역을 허락하였다.

③ 태조 때 명으로부터 1년에 세 차례 이상의 정례적 사신 파견을 요청받았다.

④ 여진이나 일본과는 교린 관계를 유지하였고, 토벌과 회유의 양면정책을 추진하였다.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선 전기의 대명 사대 외교와 여진·일본·유구에 대한 교린 정책의 내용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대 외교는 명과 책봉·조공 관계를 맺고 사절을 파견한 대외 관계이다. 교린 정책은 여진·일본·유구 등 이웃 세력과 교류하면서 회유와 토벌을 병행한 정책이다. 계해약조는 세종 때 대마도주와 맺어 일본과의 교역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약조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조선은 유구와 문물 교류를 하며 불경·유교 경전·범종 등을 전하였다.
② O. 세종 때 대마도주와 계해약조를 맺어 일본과의 통교와 교역을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하였다.
③ X. 틀린 표현은 '1년에 세 차례 이상의 정례적 사신 파견'이다. 태조 때 명은 조선에 3년에 한 번씩 정례 사신을 보내도록 요청하였다. 조선이 실제로 명에 1년에 세 차례씩 사신을 보내고 수시 사절도 파견한 사실과 명의 요청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④ O. 조선은 여진과 일본에 교린 관계를 유지하면서, 귀순을 유도하는 회유책과 침입에 대응하는 토벌책을 함께 추진하였다.

오답 포인트

③은 조선이 명에 실제로 파견한 사신의 빈도를 명이 태조 때 요구한 정례 파견 주기처럼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명은 3년에 1회 요청, 조선은 1년에 3회 파견'의 주체와 횟수를 구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선 전기 대외 관계는 명에는 사대, 여진·일본·유구에는 교린이라는 큰 틀을 먼저 잡는다. 이어 사신 왕래 문제는 누가 요청했는지와 실제 파견 주체가 누구인지를 나누어 빈도를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명의 요청은 3년 1회, 조선의 파견은 1년 3회이다. 여진·일본에는 교린과 회유·토벌을 병행한다.

NoteBase

문 16. 조선 시대 기록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록청에서 사초·시정기·승정원일기 등을 바탕으로 실록을 편찬하였다.

② 임진왜란 이전에 실록은 4부를 만들어 한양의 춘추관과 전주·성주·충주의 사고에 보관하였다.

③ 후대 왕에게 본보기로 제공하고자 국왕의 언행을 실록에서 가려 뽑아 『국조보감』을 편찬하였다.

④ 국왕과 대신이 국정을 논의할 때 예문관 한림이 사관으로 참가하여 시정기를 작성하였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선의 실록 편찬 자료와 사초·시정기·국조보감의 성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초는 사관이 국왕의 언행과 국정 논의를 사실대로 기록한 초고이다. 시정기는 국가의 중요한 정무를 기록한 자료로서 실록 편찬의 기초 자료가 된다. 국조보감은 역대 국왕의 모범이 될 만한 언행을 실록에서 가려 뽑은 책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실록청은 사초·시정기·승정원일기 등 여러 기록을 바탕으로 실록을 편찬하였다.
② O: 임진왜란 이전 실록은 4부를 만들어 한양 춘추관과 전주·성주·충주의 사고에 나누어 보관하였다.
③ O: 국조보감은 후대 왕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역대 국왕의 언행 가운데 모범이 될 내용을 실록에서 뽑아 편찬한 책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시정기'이다. 예문관 한림이 사관으로 참가하여 국왕과 대신의 국정 논의를 기록한 것은 사초이다. 시정기는 사관의 이러한 현장 기록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오답 포인트

④는 사관·국왕·대신·국정 논의라는 사초의 설명을 제시한 뒤 기록 이름만 시정기로 바꾸었다. 기록 담당자와 기록물의 이름을 함께 연결하지 않으면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관이 왕의 언행과 국정 논의를 곁에서 기록했다는 설명이면 사초로 판단한다. 실록 편찬에 활용된 관청 기록이라는 설명이면 시정기와 승정원일기 등을 함께 떠올린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사관의 현장 기록은 사초, 사초 등을 모아 편찬한 것은 실록, 실록에서 왕의 본보기를 뽑은 것은 국조보감이다.

NoteBase

문 17. 밑줄 친 '개헌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54년에 실시된 선거로 국회 내 다수 세력이 된 자유당은 새 개헌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재적 의원 203명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했다. 그러나 표결 결과 135표를 얻는 데 그쳐 부결되었다. 그럼에도 자유당은 이른바 '사사오입'이라는 논리로 부결을 번복하고 가결을 선언하였다.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 원칙이 크게 훼손된 사건이었다.

①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직접 지명하도록 규정하였다.

②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언론을 통제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③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조항을 두었다.

④ 당시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중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1954년 사사오입 개헌의 내용과 다른 헌법 개정기의 제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사오입 개헌은 국회의 의결 정족수 계산에서 이른바 사사오입 논리를 적용하여 통과시킨 1954년 개헌이다.
핵심 내용은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대통령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1952년 발췌 개헌은 대통령·부통령 직선제, 1972년 유신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와 국회의원 정수 3분의 1 추천 제도와 관련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직접 지명한 것은 사사오입 개헌의 내용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직접 지명'이다. 올바르게는 유신헌법에서 대통령이 국회의원 정수 3분의 1의 후보를 추천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이를 선출하였다.
② X.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언론 통제는 사사오입 개헌의 내용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언론을 통제'이다. 올바르게는 이 기구는 1980년 신군부 시기에 설치된 기구이며, 1954년 개헌 조항이 아니다.
③ X.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는 사사오입 개헌의 내용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이다. 올바르게는 사사오입 개헌 당시에는 1952년 발췌 개헌으로 도입된 대통령 직선제가 유지되었다.
④ O. 사사오입 개헌은 당시 재임 중이던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게 대통령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초대 대통령에게만 적용한 예외 조항이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③은 유신헌법의 제도를 사사오입 개헌에 섞은 선지이다. 특히 ④의 예외는 모든 재임 대통령이 아니라 '초대 대통령'에게만 적용되었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개헌 문제에서는 먼저 대통령 선출 방식과 중임 제한의 변화를 확인한다. 1952년은 직선제, 1954년은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 예외, 1972년은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선제로 연결하여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사사오입 개헌은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로 정리한다.

NoteBase

문 18. ㉠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국국민당과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은 몇 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통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들은 1940년에 자신들의 조직을 해체하고 힘을 합쳐 ㉠을/를 조직하였다. 강화된 조직력을 바탕으로 ㉠은/는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펼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흡수하여 조선의용군을 조직하였다.

② 무력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만주에 신흥무관학교를 창설하였다.

③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였다.

④ 쌍성보와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물리쳤다.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1940년 한국국민당·조선혁명당·한국독립당이 통합하여 만든 한국독립당의 활동을 다른 독립운동 단체의 활동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한국독립당은 1940년 충칭에서 여러 정당이 통합하여 결성한 정당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주도하고 한국광복군 창설의 기반이 되었다.
한국광복군은 한국독립당 계열이 임시정부의 군대로 조직한 부대이다.
조선의용군은 조선의용대 화북 지대가 중국 팔로군과 연합·개편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고, 쌍성보·대전자령 전투를 이끈 부대는 지청천의 한국독립군(1930년 북만주에서 결성된 한국독립당 계열의 무장 부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조선의용대 화북 지대가 중국 팔로군과 연합·개편되어 조선의용군이 된 사실은 한국독립당의 활동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조선의용군을 조직하였다'의 주체를 한국독립당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조선의용대 화북 지대가 중국 공산당 계열과 함께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되었다고 본다.
② X. 신흥무관학교는 신민회가 서간도에 세운 독립군 양성 기관이다. 틀린 표현은 '만주에 신흥무관학교를 창설하였다'의 주체를 한국독립당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신민회가 신흥강습소를 세워 뒤에 신흥무관학교로 발전시켰다고 본다.
③ O. 1940년 결성된 한국독립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주도하였고, 강화된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국광복군의 창설에 참여하였다.
④ X. 쌍성보·대전자령 전투의 주체는 지청천이 이끈 한국독립군으로, 이는 1940년 충칭에서 통합된 한국독립당이 아니라 1930년 북만주에서 결성된 한국독립당 계열의 부대이다. 틀린 표현은 해당 전투를 1940년 통합 한국독립당의 활동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한국독립군이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일본군을 물리쳤다고 본다. 참고로 조선혁명당 계열의 부대는 양세봉이 이끈 조선혁명군이고, 그 대표 전투는 영릉가·흥경성 전투이다.

오답 포인트

독립운동 단체는 모두 만주·중국 지역에서 활동하여 혼동하기 쉽다. ①은 조선의용군, ②는 신민회, ④는 지청천의 한국독립군 활동인데, 이를 1940년의 한국독립당에 연결하면 틀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1940년 정당 통합→대한민국 임시정부 주도→한국광복군'의 연결이 보이면 한국독립당으로 판단한다. 이어서 조선의용군은 조선의용대 화북 지대, 신흥무관학교는 신민회, 쌍성보·대전자령 전투는 지청천의 한국독립군으로 분리한다.

암기 포인트

1940 한국독립당은 임시정부·한국광복군, 신민회는 신흥무관학교, 지청천의 한국독립군은 쌍성보·대전자령 전투(중국 호로군 연합),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은 영릉가·흥경성 전투와 연결된다.

NoteBase

문 19.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① 박상진이 대한광복회를 조직하였다.

② 일제가 「국가총동원법」을 적용하였다.

③ 임병찬이 독립의군부를 만들었다.

④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연표의 도쿄 2·8 독립선언과 국내 6·10 만세 운동 사이의 시기를 읽어 독립운동의 연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왼쪽 기준 사건인 2·8 독립선언이 1919년에 일어났음을 확인한다.
2. 오른쪽 기준 사건인 6·10 만세 운동이 1926년에 일어났음을 확인한다.
3. (가)는 1919년부터 1926년 사이의 사건이므로,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결한다.

핵심 근거

연표의 왼쪽에는 도쿄에서 발표된 2·8 독립선언이, 오른쪽에는 국내에서 일어난 6·10 만세 운동이 제시되어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상하이에서 수립되었으므로 (가) 시기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박상진이 조직한 대한광복회는 1915년에 결성되었다. 연표의 2·8 독립선언 이전 사건이다. 틀린 표현인 '(가) 시기'가 문제이며, 올바르게는 1910년대의 사실이다.
② X — 일제가 국가총동원법을 적용한 것은 1938년 이후의 전시 동원기이다. 연표의 6·10 만세 운동보다 뒤의 사건이다. 틀린 표현인 '(가) 시기'가 문제이며, 올바르게는 1930년대 후반의 사실이다.
③ X — 임병찬이 독립의군부를 만든 것은 1912년이다. 연표의 2·8 독립선언 이전이다. 틀린 표현인 '(가) 시기'가 문제이며, 올바르게는 1910년대 초의 사실이다.
④ O —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상하이에서 수립되었다. 이는 연표의 2·8 독립선언 이후, 6·10 만세 운동 이전의 (가) 시기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①·③은 일제 강점기 초반의 사건이고, ②는 1930년대 후반의 사건이다. 모두 일제 강점기 사건이라는 공통점만 보고 고르면 연표의 기준 연도를 놓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표 문제는 양 끝의 기준 사건 연도를 먼저 정한 뒤, 각 선지를 그 사이·이전·이후로 나누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1919 임시정부, 1926 6·10 만세 운동으로 연결된다.

NoteBase

문 20. ㉠에 들어갈 명칭으로 옳은 것은?

㉠에서 소련 대표는 미국 · 소련 · 영국 외무장관이 합의한 사항에 동의하는 사회단체와 정당을 한국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할 협의 대상으로 하자고 했다. 또 합의한 사항에 반대하는 세력을 협의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소련이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양측은 이 문제로 대립하였고, 결국 ㉠는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휴회에 들어갔다.

① 미 · 소 공동 위원회
② 모스크바 3상 회의
③ 좌 · 우 합작 위원회
④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정에 따라 설치되어 한국 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협의한 미·소 공동 위원회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미·소 공동 위원회는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정에 따라 미국과 소련 대표가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 방안을 협의한 기구이다. 협의 대상이 될 한국의 정당·사회단체를 두고 소련은 모스크바 3상 회의 지지 세력만을, 미국은 더 넓은 범위를 주장하여 결렬되었다.
모스크바 3상 회의는 1945년 미국·소련·영국의 외무장관이 연 회의이고, 좌·우 합작 위원회와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는 모두 국내 정치세력이 만든 기구라는 점이 구별 기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미국·소련 대표가 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하고, 협의 대상 단체의 범위를 두고 대립한 기구는 미·소 공동 위원회이다.
② X. 틀린 표현은 '모스크바 3상 회의'이다. 모스크바 3상 회의는 1945년 미·소·영 외무장관 회의로서 미·소 공동 위원회 설치를 결정한 회의이다. 실제 협의 과정에서 단체의 참가 범위를 두고 대립한 기구는 미·소 공동 위원회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좌·우 합작 위원회'이다. 좌·우 합작 위원회는 여운형·김규식 등이 국내 좌우 세력의 합작을 추진하려고 만든 기구이다. 미국과 소련 대표가 참여한 회의체가 아니다.
④ X. 틀린 표현은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이다.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는 광복 직후 여운형이 건국 준비를 위해 조직한 국내 기구이다. 실제로는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에 따라 구성된 미·소 공동 위원회가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②의 모스크바 3상 회의는 미·소 공동 위원회를 낳은 상위 회의라는 점이 함정이다. '미·소 대표의 협의', '참가 정당·사회단체의 범위 대립', '휴회'가 함께 제시되면 모스크바 3상 회의 자체가 아니라 미·소 공동 위원회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회의 참가자를 확인한다. 미·소·영 외무장관이면 모스크바 3상 회의이고, 미국·소련 대표가 한국 정당·사회단체와의 협의 범위를 두고 충돌하면 미·소 공동 위원회이다. 국내 인물이 좌우 합작이나 건국 준비를 추진하면 각각 좌·우 합작 위원회,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정 → 미·소 공동 위원회 설치 → 협의 대상 범위 대립으로 휴회이다.

NoteBase